

|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배포 일시 | 2023. 2. 14.(화)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당 부서 | 주택정책관           | 책임자 | 과 장 이장원 (044-201-3321) |
|       | 주택임차인보호과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김애리 (044-201-3314) |
| 보도일시  |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

-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등 -

- 오늘('23. 2. 14.)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「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」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한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

### 【주요 내용】

- ▶ **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**
  -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피해 예방 가능
- ▶ **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**
  -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로 가능
- ▶ **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**
  -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그들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

## 1. 개정 추진 배경

-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
  - 이러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,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,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.
- 한편,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, 임대인의 주소 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.
- 이에,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## 2. 개정안 주요 내용

### 1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일부개정법률안

#### 가. 임차인 정보열람권한 강화

-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,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.

※ 현재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,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없음

- 또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**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** 하고,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되,
  -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**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**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**전세피해를 예방할 수** 있습니다.

## **나. 임차권등기 신속화**

- 개정안은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(제3조의3 제3항)의 준용규정에 ‘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’는 「민사집행법」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하여,
  -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하여 임차인의 **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**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.

## **② 「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**

-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, 그동안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**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·상향**하였습니다.
  - 아래와 같은 내용의 「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'23. 2. 14.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,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| 지역 구분                  |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|                      | 최우선변제금액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| 현행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| 현행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|
| 서울특별시                  | 1억 5,000만원 이하      | <b>1억 6,500만원 이하</b> | 5,000만원 이하 | <b>5,500만원 이하</b> |
| 과밀억제권역,<br>용인·화성·세종·김포 | 1억원 3,000만원 이하     | <b>1억 4,500만원 이하</b> | 4,300만원 이하 | <b>4,800만원 이하</b> |
| 광역시,<br>안산·광주·파주·이천·평택 | 7,000만원 이하         | <b>8,500만원 이하</b>    | 2,300만원 이하 | <b>2,800만원 이하</b> |
| 그 밖의 지역                | 6,000만원 이하         | <b>7,500만원 이하</b>    | 2,000만원 이하 | <b>2,500만원 이하</b> |

※ 각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,500만 원 상향하고,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 500만 원 상향

- 이에 따라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최우선변제 받을 금액이 증액되어 **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 보호를 강화**하였습니다.
- 한편, 개정안은 **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**하되,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**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**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**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**시켰습니다.

- ① 시행 전 임차 주택에 **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**
  - **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** 최우선변제금 보호
- ② 시행 이후 임차 주택에 **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**
  - **개정된 시행령에 따라** 최우선변제금 보호
- ③ 시행 전 임차 주택에 **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,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**
  - **기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,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** 최우선변제금 보호

### 3. 향후 계획

-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아울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**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** 힘쓰도록 하겠습니다. ☑

- 【붙임】 1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일부개정법률안  
2. 최우선변제금 제·개정 경과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<br><총괄> | 법무부<br>법무심의관실     | 책임자 | 법무심의관 | 구승모 (02-2110-3164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서기관   | 임성택 (02-2110-3502) |
|               | 국토교통부<br>주택임차인보호과 | 책임자 | 과 장   | 이장원 (044-201-3321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  | 김애리 (044-201-3314) |

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<b>제3조의3(임차권등기명령)</b>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「민사집행법」 제280조제1항, 제281조, 제283조, 제285조, 제286조, 제288조제1항·제2항 본문, 제289조,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,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가압류”는 “임차권등기”로, “채권자”는 “임차인”으로, “채무자”는 “임대인”으로 본다.</p> <p>1.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<br/>2.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<br/>3.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<br/>4.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</p> <p>④ ~ ⑨ (생략)</p> <p><b>제3조의6(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)</b>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⑤·⑥ (생략)</p> | <p><b>제3조의3(임차권등기명령)</b>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br/>-----<br/>-----제288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본문-----<br/>-----<br/>-----제291조, 제292조제3항--<br/>-----<br/>-----<br/>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~ 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3조의6(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)</b>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br/>-----<br/>-----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에게 정보제공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4항 후단의 요구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⑥·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</p> |

**제3조의7(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 정보 제시)**

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조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납세증명서(이하 “납세증명서” 라 한다)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「국세징수법」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
2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

②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요구에 따라 그 요구를 받은 날 이후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날 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다.

③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열람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시를 갈음할 수 있다.

1. 「국세징수법」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 국세와 체납액의 열람
2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 지방세의 열람

**<부 칙>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)**

제3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내려져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## 붙임 2

## 최우선변제금 제·개정 경과

| 제·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 | 우선변제되는 보증금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1984. 6. 14.<br>제정             | 500만원 이하  | · 특별시·직할시 : 300만원 이하<br>· 기타 지역 : 200만원 이하  |
| 1987. 12. 1.<br>1차 개정          |   | · 특별시·직할시 : 500만원 이하<br>· 기타 지역 : 400만원 이하  |
| 1990. 2. 19.<br>2차 개정          | · 특별시·직할시 : 2,000만원 이하<br>· 기타 지역 : 1,500만원 이하  | · 특별시·직할시 : 700만원 이하<br>· 기타 지역 : 500만원 이하  |
| 1995. 10. 19.<br>3차 개정         | · 특별시·광역시 : 3,000만원 이하<br>· 기타 지역 : 2,000만원 이하  | · 특별시·광역시 : 1,200만원 이하<br>· 기타 지역 : 800만원 이하  |
| 2001. 9. 15.<br>4차 개정          | ·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: 4,000만원 이하<br>· 광역시 : 3,500만원 이하<br>· 그 밖의 지역 : 3,000만원 이하   | ·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: 1,600만원 이하<br>· 광역시 : 1,400만원 이하<br>· 그 밖의 지역 : 1,200만원 이하   |
| 2008. 8. 21.<br>5차 개정          | ·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: 6,000만원 이하<br>· 광역시 : 5,000만원 이하<br>· 그 밖의 지역 : 4,000만원 이하   | ·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: 2,000만원 이하<br>· 광역시 : 1,700만원 이하<br>· 그 밖의 지역 : 1,400만원 이하   |
| 2010. 7. 21.<br>6차 개정          | · 서울특별시 : 7,500만원 이하<br>·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: 6,500만원 이하<br>· 광역시 및 안산시·용인시·김포시·광주시 : 5,500만원 이하<br>· 그 밖의 지역 : 4,000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서울특별시 : 2,500만원 이하<br>·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: 2,200만원 이하<br>· 광역시 및 안산시·용인시·김포시·광주시 : 1,900만원 이하<br>· 그 밖의 지역 : 1,400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13. 12. 30.<br>7차 개정         | · 서울특별시 : 9,500만원 이하<br>·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: 8,000만원 이하<br>· 광역시 및 안산시·용인시·김포시·광주시 : 6,000만원 이하<br>· 그 밖의 지역 : 4,500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서울특별시 : 3,200만원 이하<br>·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: 2,700만원 이하<br>· 광역시 및 안산시·용인시·김포시·광주시 : 2,000만원 이하<br>· 그 밖의 지역 : 1,500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16. 3. 31.<br>8차 개정          | · 서울특별시 : 1억원 이하<br>·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: 8,000만원 이하<br>· 광역시 및 안산시·용인시·김포시·광주시·세종시 : 6,000만원 이하<br>· 그 밖의 지역 : 5,000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서울특별시 : 3,400만원 이하<br>·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: 2,700만원 이하<br>· 광역시 및 안산시·용인시·김포시·광주시, 세종시 : 2,000만원 이하<br>· 그 밖의 지역 : 1,700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|
| 2018. 9. 18.<br>9차 개정          | · 서울특별시 : 1억 1,000만원 이하<br>·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·화성시·세종시 : 1억원 이하<br>· 광역시 및 안산시·김포시·광주시·파주시 : 6,000만원 이하<br>· 그 밖의 지역 : 5,000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| · 서울특별시 : 3,700만원 이하<br>·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·화성시·세종시 : 3,400만원 이하<br>· 광역시 및 안산시·김포시·광주시·파주시 : 2,000만원 이하<br>· 그 밖의 지역 : 1,700만원 이하             |
| 2021. 5. 11.<br>10차 개정<br>(현행) | · 서울특별시 : 1억 5,000만원 이하<br>·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·화성시·세종시·김포시 : 1억 3,000만원 이하<br>· 광역시 및 안산시·김포시·광주시·파주시·이천시·평택시 : 7,000만원 이하<br>· 그 밖의 지역 : 6,000만원 이하 | · 서울특별시 : 5,000만원 이하<br>·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·화성시·세종시·김포시 : 4,300만원 이하<br>· 광역시 및 안산시·김포시·광주시·파주시·이천시·평택시 : 2,300만원 이하<br>· 그 밖의 지역 : 2,000만원 이하 |